

삶의 진실 깨우쳐 준 ‘스승의 스승’

침묵 속에 얻는 책의 가르침

이태동

서강대 교수·영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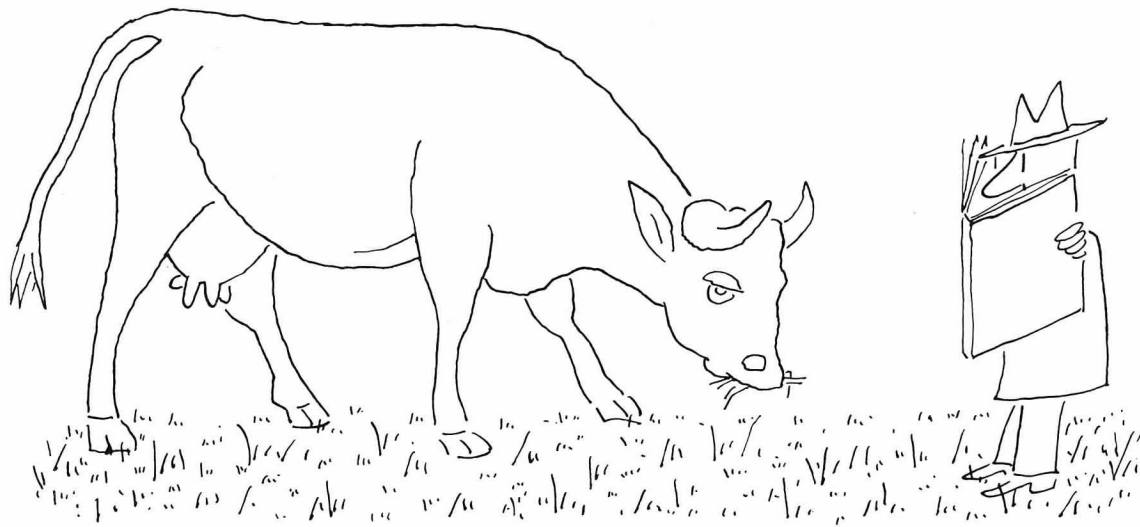
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인지 글쓰고 가르치는 일을 하며 오늘을 살아간다. 그래서 학생들은 나를 스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남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학식이 많거나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언젠든지 배워야만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나의 스승들은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자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고 아쉬움과 함께 세월따라 가고 아니 계시다.

“스승의 스승은 책”

그렇다면 아직도 삶의 진실과 우주에 대해 배울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 나에게 스승이란 없을까. 그렇지만은 않으리라. 세월 속에 스승을 물어버린 지금, 나에게 스승은 책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스승의 스승은 책이 아니겠는가. 세월 속에 묻힌 나의 스승들은 책에서 얻은 지식과 독서경험으로 그들의 인품을 훌륭하게 만들어 후학(後學)들의 마음에 그렇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책은 인격체를 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스승의 역할을 가장 근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책은 육성과 몸짓으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가르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나에게 가르쳐주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마도 경험일 것이다. 상상적인 경험이든, 지적인 경험이든, 혹은 감각적인 경험이든 그것은 곧 생(生)이고 신(神)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최초로 책이 나에게 경험의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읽은 묵향(墨香) 그윽한 천자문(千字文)이었다. 그후, 유년시절에 《안셀름 동화》와 함께 읽은 수많은 책들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나에게 광활한 세계에 대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가르쳐주었다.

소년시절을 보내고 난 후 고등학교 시절에 읽은 《스케치북》이라는 책은 산그림자가 드리워진 내륙(內陸)에 살던 나에게 일찍부터 바다의 풍경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파도치는 바다의 지평선 너머로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사람들과 먼 바다에서 귀향(歸鄉)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이별과 감격적인 만남이



아직도 삶의 진실과 우주에 대해 배울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 나에게 스승이란 없을까. 따지고 보면 스승의 스승은 책이 아니겠는가. 반백이 지난 지금, 나를 가르쳤던 스승들은 세월 속에 아니 계시지만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은 값진 삶의 진실과 우주의 신비, 그리고 철학적인 사색을 열어주는 창과 거울이 되고 있다.

있는 낭만적이고 우주에 찬 부뚝가의 풍경들을 담은 《항해》라는 글이며, 늙은 어머니가 바다로 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웨스트민스트 사원(寺院)》이라는 글에서 읽은 풍금소리의 연민은 생의 슬픔과 애환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가르쳐주었다. 내가 처음 읽은 《로빈슨 크루소》는 절해 고도에서 고립되어 혼자 사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역경을 이겨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함께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플루타크 영웅전》을 비롯하여 용기있고 의롭게 살다간 여러 위인들의 전기(傳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지닌 의무와 책임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한 인상깊게 가르쳐주었다. 비전문가로서 쉽게 읽은 책이지만, 아인슈타인과 호킨 등이 쓴 천체(天體)에 관한 책들은 나로 하여금 우주의 신비에 눈 뜨게 해 지적인 호기심을 크게 자극시켜 주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

이것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고전적인 문학작품은 그 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닌 수많은 타인들의 생애를 살면서 느끼는 삶의 아름다운 잔무늬는 물론 생(生)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인 체험 못지않은 상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도록 해주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호돈의 《주홍글씨》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햄릿》 등은 부조리한 실존적인 상황 속에 사는 주인공들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인간적인 잘못으로 자기의 운명과 처절하게 싸우다가 비장(悲壯)하게 맞는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혼탁한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카타르시스의 작용이 무엇인가를 충격적으로 가르쳐주었다. 힐데린, 워즈워드, 보들레르의 시, 그리고 한용운, 정지용, 서정주 등과 같은 우리 시인들의 시, 그리고 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는 격조 높고 우아한 수필집

등은 삶의 풍경 속에 숨은 진실들을 발견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찾아서 예술로서 변용시킬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의 길인가를, 어느 스승 못지않게 미학적인 울림을 통해 낮은 음조로 마음에 조용히 젖어들게 했다. 또 역사와 사회 그리고 존재문제를 다루고 있는 철학서적의 가르침의 매력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리.

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나의 서가(書架)에 꽂혀 있는 책들은 항상 나에게 작은 축복과 보람, 그리고 지혜를 가져다주는 훌륭한 스승이 되고 있다. 독일 속담에 ‘지혜의 샘물이 책 사이로 흐른다’는 말을 기억하면, 나의 책들은 결코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과 같은 스승이 되고 있다. 칼라일이 ‘수집한 책은 대학(大學)의 기능을 한다’고 말한 것은 책이 곧 영원한 스승이란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반백(半百)이 지난 지금, 나를 가르쳤던 스승들은 흐르는 세월 속에 아니 계시지만 나의 주변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은 값진 삶의 진실과 우주의 신비, 그리고 철학적인 사색을 열어주는 창과 거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영원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책임은 즐거움과 축복 속에서 오늘을 고맙게 살아간다.